



## 조코비치 Wimble던 4연속 우승·메이저 21승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Wimble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막을 내린 2022 Wimble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끝난 Wimble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우승하면서 Wimble던 남자 단식의 '빅4' 독점 체제가 20년째 이어졌다.

남자 테니스의 '빅4'는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 앤디 머리(영국) 네 명을 일컫는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세계 남자 테니스계 강자로 군림하는 선수들이다.

올해 2월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남자 단식 세계 1위에 오르면서 2004년 2월 앤디 로딕(미국) 이후 18년 만에 '빅4' 이외의 세계 1위가 됐을 정도로 '빅4'의 장기 집권이 계속됐다.

4대 메이저 대회에서도 '빅4'가 우승컵을 나눠 가졌는데, 2004년 Wimble던부터 올해 Wimble던까지 총 72회 메이저 대회(호주오픈·프랑스오픈·Wimble던·US오픈) 가운데 '빅4'가 아닌 선수가 우승한 적은 7번에 불과하다.

### 남자 테니스 '빅4' 조코비치·나달·페더러·머리 20년간 72회 메이저 대회 중 65차례 우승컵 차지

특히 유일한 잔디코트 메이저 대회인 Wimble던은 '빅4' 독점이 가장 심했다.

2002년 레이튼 휴잇(호주)이 정상에 오른 이후 올해까지 20년간 '빅4'가 아닌 선수가 Wimble던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20년 사이에 페더러가 8번, 조코비치가 7번 우승했고, 나달과 머리는 두 차례씩 Wimble던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호주오픈은 2014년 스탄 바브링카(스위스)가 우승한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빅4'만 우승했고, 프랑스오픈은 역시 2015년 바브링카 이후 올해까지 7년 연속 조코비치와 나달이 우승을 나눠 가졌다.

US오픈만 2020년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

지난해 메드베데프가 연달아 정상에 오르며 '빅4'의 아성이 흔들렸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경쟁은 이번 대회 결과로 더욱 뜨거워졌다.

나달이 22회로 가장 많고, 조코비치가 21회, 페더러는 20회씩 우승했다.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는 8월 말 개막하는 US오픈인데 이 대회에는 나달, 조코비치, 페더러의 출전이 모두 불투명하다.

Wimble던 4강에서 복근 부상으로 기권한 나달은 몸 상태 회복 여부가 변수고, 조코비치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아 현재 규정대로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무릎 부상 중인 페더러 역시 빨라야 올해 9월에

나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1년생 페더러가 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고, 1986년생 나달과 나달보다 1살 어린 조코비치가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을 놓고 다투는 모양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11일 조코비치와 나달, 페더러의 주요 타이틀 현황을 비교했다. 시즌 왕중왕전 성격의 ATP 파이널스에서는 페더러가 6회, 조코비치가 5회 우승했고, 나달은 한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나달은 이 세 명 가운데 유일하게 올림픽 단식 금메달이 있다.

또 메이저 다음 등급인 ATP 1000시리즈 대회에서는 조코비치가 38회, 나달 36회 우승했고 페더러는 28회 우승 기록이 있다.

메이저(올림픽 포함), ATP 파이널스, ATP 1000시리즈 우승 횟수를 더하면 조코비치가 64회로 가장 많다. 나달(59회)과 페더러(54회)가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세혁, Wimble던 14세부 단식 우승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14)이 Wimble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을 제패했다.

조세혁은 10일(현지시간) 영국 Wimble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4세부 남자 단식 결승에서 커렐 오브리엘 은고노에(미국)를 2-0(7-6(7-5) 6-3)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조세혁은 올해 신설된 Wimble던 14세부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주니어 부문은 예전과 같이 진행됐고, 그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위해 14세부가 올해 Wimble던에서 처음 열렸다.

2018년 호주오픈 남자 단식 4강까지 올랐던 정현이 2013년 Wimble던 주니어(18세 이하) 단식에서 준우승했다. 이번 Wimble던 14세부 단식은 16명이 출전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준결승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 '4위 목표' 분위기 바꾼 KIA 잠실서 LG와 전반기 최종전

### T 타이거즈 전망대

#### 오늘 양현종 선발 출전

분위기를 바꾼 '호랑이 군단'이 4위를 목표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12일부터 잠실로 가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2022시즌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다.

KBO리그는 주중 3연전을 끝으로 오는 21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낸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통해 KIA는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점감받는다.

이번에 만나는 LG는 3위에 자리하고 있다. 9.5경기 차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이자,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2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난적이다.

일단 KIA는 주말 한화전 스윙과 함께 전반기 5위 자리를 확보했다.

KIA는 8연패 상황에서 만난 한화를 상대로 8일 5-3 역전극을 펼쳤다. 김호영의 '특급 수비'로 연패에서 탈출한 KIA는 9일에는 이우성의 슈퍼캐치로 연승을 달렸다.

수비로 분위기를 살린 KIA는 10일에도 '뒤집기 쇼'를 펼치면서 스윙과 한화전 9연승에 성공했다.

주말 반전을 이룬 KIA는 6위 롯데와 5.5경기 차를 만들면서 전반기 5위 자리를 확보했다. 4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KT가 지난 10일 7연패 행진을 마감하면서 KIA와 1경기 차 4위가 됐다.

KIA는 선발진을 추가동해 기싸움을 벌인다.

12일 양현종이 먼저 이민호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토마스 파노니도 '정식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파노니는 지난 7일 KT전을 통해 KBO 첫 선을 보였다. 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한 차례 경기가 중단됐고, 3회초 2사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서 결국 노게임이 선언됐다.

등판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파노니는 46개의 공을 던지면서 위망업을 끝냈다.

이의리의 전반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A는

지난 8일 하루 앞당겨 이의리를 마운드에 투입했다. 위험 부담 많았던 로테이션 변경이었지만 이의리는 '7이닝 3실점 승리투수'가 됐고, 팀은 연패에서 탈출했다.

관건은 부상 공백과 뒷문 싸움이다.

소크라테스가 코뼈 골절로 자리를 비웠고 지난 9일에는 박동원이 왼쪽 발목 부상으로 전반기를 일찍 마무리했다.

기회를 얻은 김도영과 김석환 두 선수에 눈길이 쏠린다.

프로 적응을 끝낸 김도영은 10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역전의 발판이 된 영양가 만점의 안타였다. 9일에는 2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등 프로 첫 4출루에도 성공했다.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는 김도영은 타격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김석환도 외야 경쟁에 불을 붙였다.

9일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시원한 한방을 날린 김석환은 10일에도 2루타를 터뜨리는 등 타선에 무게감을 더했다.

아직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두 선수가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젊은 불펜'의 힘 싸움에도 눈길이 쏠린다.

전상현이 불펜 싸움 선봉에 선다. 전상현은 7월 4경기에서 '0'의 행진을 하고 있다.

정해영이 흔들리자 10일에는 마무리 역할도 수행했다. 6-3으로 앞선 9회초 2사 만루에서 등판한 전상현은 하주석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스윙승을 완성했다.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장형식도 10일 동점 상황에서 출격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김재열은 17구로 2이닝 퍼펙트 행진을 하면서 역전극의 발판을 놓았다.

관건은 마무리 정해영의 '자신감'이다.

정해영은 주말 3경기에 모두 출석했고, 모두 불펜세이브 위기에 몰렸었다. 김호영·이우성의 특급 수비와 전상현의 슈퍼 세이브로 한숨을 돌린 정해영이 자신감을 갖고 잠실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주형, PGA 스코틀랜드오픈 단독 3위

### 14일 디오픈 출전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상금과 대상,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휩쓴 김주형(20)이 세계 톱 란커들이 대거 출전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800만 달러)에서 단독 3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 르네상스클럽(파70·7237야드)에서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가 공동 주관한 대회로 특히 다음 주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아직 PGA 투어 회원이 아닌 김주형이 PGA 투어 대회 '톱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형은 지난해 3월 푸에르토리코오픈 공동 15위가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5월 AT&T 바이런 넬슨 공동 17위, 6월 US오픈 23위 등을 기록했다.

김주형은 이번 대회 상금 55만2000 달러(약 7억1000만원)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시즌 KPGA



김주형이 10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 르네상스클럽에서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1번 홀 그린에 앉아 퍼팅 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투어에서 김주형이 상금 1위를 차지하며 벌었던 액수(7억5493만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대회 첫날 공동 15위, 2라운드 13위, 3라운드 9위로 순위를 조금씩 올린 김주형은 이날 8번 홀(파4)에서 약 4.5m 버디 퍼트를 넣었고 16~

17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는 등 타수를 줄였다.

김주형은 14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즈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제150회 디오픈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충남아산에 0-4 대패

전남드래곤즈가 충남아산전 0-4 대패로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전남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6라운드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자책골 등으로 4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남의 7경기만의 대패이자 이장관 감독의 첫 패배이다.

이 감독은 6월 20일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프

로 데뷔전을 치른 뒤 5경기에서 패배 없이 승점 5점을 획득했다.

전반 40분 전남의 골대가 뚫렸다.

충남아산 골키퍼 박주원의 골키퍼 길게 바운드 때 전남 진영으로 넘어왔다. 공을 잡은 유강현이 전남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을 뚫었다.

후반 18분 전남이 페널티킥 실축으로 땅을 쳤다.

박인혁이 키커로 나서 오른쪽으로 공을 때렸고, 방향을 잃은 골키퍼 박주원이 공을 막아냈다.

동점 기회를 놓친 전남은 곧바로 두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후반 19분 김강국의 패스를 받은 유강현이 오른발로 다시 골대를 가르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유강현의 골을 도운 김강국은 후반 24분 머리로 전남 골망을 흐르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전남은 경기 종료로 눈앞에 두고 자책골로 네 번째 실점을 했다.

박철우의 크로스가 전남 진영으로 향했고, 장순혁 맞은 공이 그대로 전남 골대를 갈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